

보도자료**헤레우스가 2022년 5월 1일부로 HS첨단소재를 헤레우스코리아로 공식 통합하여
쿼츠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업계 최고 순도의 쿼츠 제조 및 가공을 자랑하는 독일 첨단소재 전문기업 Heraeus Conamic은 2021년 11월 반도체 및 기타산업용 쿼츠 반가공 제품을 가공 및 공급하는 국내기업 HS첨단소재(주)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로 HS첨단소재의 기존 사업은 Heraeus Conamic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국에서는 헤레우스코리아의 쿼츠 사업부로 운영됩니다.

Heraeus Conamic의 President인 Christoph Fark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원동력이며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인수로 우리는 한국에서 쿼츠 원소재 공급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로 헤레우스코리아로 통합되면서 한국 사업은 헤레우스 그룹의 명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 HS첨단소재가 운영하던 사업을 헤레우스코리아로 공식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객과 Heraeus Conamic 모두 장기적인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Heraeus Conamic의 President인 Michael Werth가 덧붙입니다. 이번 인수에 따라, HS첨단소재는 기존 사업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새롭고 더 큰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헤레우스코리아 배명환 대표이사는 “1984년부터 한국시장에 솔루션을 제공해온 헤레우스는 2010년 헤레우스코리아로 각 사업부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총 7개의 사업부가 더욱 확장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레우스코리아의 쿼츠 사업부는 쿼츠 반가공 제품을 한국 및 전 세계 쿼츠 제조사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쿼츠 링, 잉곳, 플레이트, 로드, 튜브와 같은 쿼츠 기본 재료의 전체 포트폴리오도 제공합니다. 쿼츠 가공에는 와이어 톱, 밴드 톱, 코어 드릴, 선반 절단 및 연삭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Heraeus 소개

독일 하나우에 본사를 둔 기술 그룹인 Heraeus는 세계적인 가족 소유 포트폴리오 기업입니다. 회사의 뿌리는 1660년에 시작된 가족 약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Heraeus 그룹에 포함된 환경, 전자, 건강 및 산업 응용 분야 기업들은 광범위한 재료 전문 지식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에 FORTUNE에서 선정한 Global 500대 기업 중 하나인 Heraeus는 40개국에 약 14,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31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Heraeus는 독일의 상위 10대 가족 소유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eraeus Conamic 소개

Heraeus Conamic은 업계 최고 순도의 쿼츠, 그리고 세라믹 및 복합 재료와 같은 고급 재료의 제조 및 가공에서 기술 리더이자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및 포토닉스 산업을 위한 천연 및 합성 쿼츠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핵심 공정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세라믹 및 복합 재료와 같은 고급 재료를 중점으로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지사를 통해 Heraeus Conamic은 반제품부터 복잡한 시스템 구성 요소, 맞춤형 솔루션에 이르는 쿼츠 및 세라믹 제품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담당자

Christina Pihan

Head of Marketing Heraeus Conamic

+49 6181 35-6453

christina.pihan@heraeus.com